

광주공항 국내선 당분간 존치

광주시·전남도, 무안공항 국제선 활성화 공동 노력

강운태 시장·박준영 지사 상생 합의문 채택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공항 국내선을 당분간 존치하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로 시·도가 갈등을 빚으면서 느슨해졌던 광주·전남의 상생을 위한 연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0일 양 시·도 실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5년 만에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를 열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박 지사는 합의문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시민들이 광주공항 국내선 유지를 열원하고 있는데다 2014년 호남고속철도 1단계가 개통될 경우 국내선의 의미도 퇴색되는 만큼 국제선 유치와 화물·정비 부문 강화 등을 정부에 요청, 무안공항 국제선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시장으로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광주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다소 불편하겠지만 무안공항의 국제노선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겠다"며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에 동의하자, 강

시장은 그동안 주장해온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출범 후 대립 양상으로까지 이어졌던 광주·전남의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둘러싼 마찰은 봉합됐다.

이들 두 단체장은 지난해 말 호남 광역권경제발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로 얼굴을 붉힌 뒤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던 국토해양부에 각각 광주공항 이전과 존치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두 단체장의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합의로 인해 국내선과 함께 추진됐던 군(軍) 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강력히 요청했던 전남 서남권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양 시·도지사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에서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영산강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 복원', '2012 세계한상대회 공동유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잘해봅시다”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오른쪽)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판·검사 퇴직후 1년 근무지 수임 금지

대법관 14명→20명으로...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법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한편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유우 근절을 위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컬러 제도'는 2017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위는 특히 검찰 '특별수사청'의

소위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8명의 대법관을 민사·특허부(1부)와 형사·행정부(2부)로 9명씩 나눈 뒤 각부 산하에 3명씩의 대법관으로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조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컬러 제도'는 2017년 이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위는 특히 검찰 '특별수사청'의

경우,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하기로 했다. 특별수사청은 판·검사 등의 직무 관련 범죄뿐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담당하게 된다.

검찰에는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경찰의 수사계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키로 했다.소위는 이 같은 개혁안을 사법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뒤 4월10일까지 법률 조문화 작업을 완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수산단 정전, 변전소 고장 탓”

정부조사단...한전·GS칼텍스 책임 공방

지난 1월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전사고는 여수화력변전소의 고장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대규모 정전사고는 GS칼텍스 계전기와 변전소 모선보호계전기 모두 오작동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과 GS칼텍스 간 책임소재와 보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지난 1월17일 오후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한전이 관리하는 여수화력변전소의 케이블 종단점속합에서 전기가 땅으로 흐르는 고장이 발생하면서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여수산단 내 26개 업체가 순간 전압강하의 영향을 받아 전압에 민감한 공장 내 일부 설비가 정지됐다. 이후 연쇄작용으로 GS칼텍스의 거리계전기가 거의 동시에 오작동했고, 잠시 뒤 변전소 케이블 회로가 복구될 때 모선보호계전기도 오동

작을 일으켜 GS칼텍스로 흐르는 전기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GS칼텍스 공장뿐만 아니라 GS칼텍스를 거쳐 전기를 공급받는 LG화학과 삼남석유화학 공장에 23분간 전기 공급이 끊겼고 GS칼텍스는 230억원, 삼남석유화학은 200억원, LG화학은 80억원 등 총 707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정전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에 따라 한전과 GS칼텍스 간 공방 대상이었던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피해보상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전 사고는 전적으로 한전 책임인데도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한전과 함께 GS칼텍스의 책임도 있다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다”며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미흡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1차 고장은 한전 전기설비에서 발생했지만, 대규모 정전사고는 GS칼텍스와 한전 계전기가 모두 오작동하면서 발생했다”며 “한전의 잘못이 아닌 양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준금리 0.25%P 인상

2년3개월만에 3%대 복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011년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10일 김종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또 총액 대출 한도 금리도 0.25%포인트 올렸다. 〈관련기사 9면〉

금통위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한 격월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준금리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년3개월만에 처음으로 3%대로 진입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올해 들어 연속 2개월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3.0±1.0%)를 이탈하면서 물가불안이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한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2011년 3월 중순 준공

해피뷰삼성메디타워 임대

특급호텔처럼 편안하며 수준높은 일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메디컬 빌딩!
해피뷰삼성메디타워의 기능과 가치를 실현하실 전문 클리닉을 모시고자 합니다

해피뷰삼성메디타워

- ✓ 건강상징의 새명사로 탄생
- ✓ 1,000만 무등산 등산객 만남의 명소
- ✓ 학동 중심사 전철역 1번출구 위치
- ✓ 성인병 예방치료 전문병원 해피뷰삼성병원 개원
- ✓ 각종 전문 클리닉 입점

층별구성

3월 28일 진로 개시(예정)	5~10F	해피뷰삼성병원(내과·2·3,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종양검진실)
전문클리닉 초대	2~4F	이비인후과 /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 안과 / 소아과 등(층별임대 우대)
입점 확정을 환영합니다! 4월 1일 OPEN(예정)	1F	해피뷰약국 / 콘덴자죽 / 파riba케트 카페 / 24시 패밀리마트

HAPPY VIEW 해피뷰 삼성병원

문의전화 010-9762-4438, 062-519-9800
해피뷰삼성병원 간호사(신규 및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062-519-9246, 010-8825-7190